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서울 문성중 고은별 교사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가수 BTS의 연설영상이 훌륭한 영어수업교재로



영상 시청 후 빈칸 채우기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모습. 문성중 제공

“Today, I am who I am with all of my faults and my mistakes(오늘의 결점 많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서울 문성중 영어 수업 시간. 학생들은 교과서 대신 지난 9월 미국 뉴욕 UN(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니세프 행사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BTS)의 연설 영상을 시청한다. ‘Love yourself’라는 주제의 연설 영상을 시청하며 수업시간에 배운 주요 문법 개념을 복습하는 것은 물론 자존감도 회복한다.

고은별 서울 문성중 영어 교사는 시험 직후 영어 수업시간에 중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 영상 및 해외의 유명 팝가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영어 연설과 팝송을 듣고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며 주요 문법을 복습하고, 시

청한 영상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거나 영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이 수업을 기획한 고 교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묻고 들었다.

지루한 교과서 대신 가수 영상으로

학습의욕 UP

중간·기말고사 직후 수업시간은 시험 준비에 학습의욕을 소진한 학생들로 인해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학습동기가 약해진 이 시기, 무작정 교과서 진도를 나가면 학생들은 수업에 더욱 흥미를 잃기 쉽다. 이 때는 가벼운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학습의지를 북돋는 것이 효과적.

고 교사가 시험 직후 수업시간에 가수 영상을 활용한 활동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 영상을 수업에 활용하면 시험이 끝난 후 잊어버리기 쉬운 영어 개념을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의 콘텐츠도 내용을 유심히 살피며 깊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

BTS 유엔 연설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1차시 동안 진행됐다. 학생들은 먼저 한글 자막과 함께 7분 분량의 연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다. 자막과 함께 영상을 보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것. 그 후 교사와 함께 연설에 활용된 주요 단어를 학습한 후 연설의 핵심 주제를 다룬 부분을 반복해 들으며 활동지의 빈칸을 채웠다. 이를 통해 △5형식 문장 △복합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등의 문법개념을 복습하고, 핵심 문장을 스스로 해석해보며 영어의 읽기·듣기·독해 실력을 길렀다.

고 교사는 “교과서에는 문법의 용례를 보여주기 위해 연관성 없는 문장이 분절적으로 등장하지만 연설문은 여러 문장이 모여 하나의 핵심 주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문법개념을 실제적으로 학습하기에 용이하다”며 “수업에서 배운 표현이 일상생활에 실제로 쓰이는 것을 보자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흥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BTS 유엔 연설 영상은 인성교육에도 효과적이다. 고 교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전하는 연설의 메시지를 학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단점, 부끄러웠던 과거 모습을 발표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교사는 “연설 내용을 유치하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입을 통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으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며 “개인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 영상을 활용한 덕에 자살예방방치·세계시민 교육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어에 등 돌린 학생도 일으켜 세우는

팝송 영상

학습 의지가 최저치에 달하는 학기말 수업시간에는 팝송 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제격이다. 스토리 중심의 뮤직비디오는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팝송의 신나는 멜로디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흥얼거리도록 해 학습에 효과적이기 때문. 고 교사는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원 디렉션 ‘What Makes You Beautiful’ △찰리푸스 ‘One Call Away’ 등의 뮤직비디오를 수업에 활용했다.

해당 수업 역시 뮤직비디오를 감상한 후 노래를 반복해 들으며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

으로 진행됐다. 다만 고 교사는 학생들이 문법을 좀 더 재밌게,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팝송의 가사를 예시로 제시했다. 가령 'What Makes You Beautiful'을 통해 관계대명사 'what'을 학습할 때에는 브루노 마스의 'That's What I like' 등의 가사를 제시하고 해당 노래를 간단히 들려준 것.

고 교사는 “새 팝송을 알게 된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 직접 영상을 찾으며 노래를 듣기도 했다”며 “평소 영어에 자신 없어하던 학생들도 한국어 발음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오는 등 영어공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팝송을 통해 서양의 문화적 특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고 교사는 “'All I Want For Christmas'에는 Fireplace(벽난로), Mistletoe(덩굴식물)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온돌문화가 없는 서양에서는 지금도 난방을 위해 벽난로를 사용하며, 크리스마스하면 트리를 떠올리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Mistletoe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학습수준에 맞춰 적정수준의 학습량 설정해야”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학습 분량에 지나치게 욕심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초기에 팝송 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더니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팝송이던 연설문이던 학생들의 학습수준 혹은 수업 기획의도에 맞춰 핵심적인 부분만 해석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야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제공할 때에는 시각적인 요소도 고려해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주는 것이 좋다.

Q. 수업의 효과는?

방학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학생들이 시험 이후에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일부 학생은 수업 진도를 나갈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즉,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과서를 활용해 진도만 나갔더라면 영어에 흥미를 잃어버렸을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100% 따라오지는 못하더라도 재미있게 참가하며 영어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다.

Q.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기본적으로 교사가 매체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이나 영화, 음악을 보고 들을 때 수업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어 영상을 수업에 틀기에 앞서 첨부부터 끝까지 내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서양의 문화가 개방적이다 보니 12세, 15세 관람가 영상이더라도 다소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장면을 미리 교사가 파악하고 해당 장면을 피해 보여 주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고은별 서울 문성중 영어 교사